

삼능건설 ‘재기의 발판’

법원 회생계획안 가결…지역 건설업계 활기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능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초 대체적인 구조조정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역 건설 업계도 활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삼능건설 체권자들은 2일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강희) 주재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 94.2%, 체권자 76.9%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는 법원이 삼능건설에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 지 3개월 만에 체권단이 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 결정을 선고했다.

또 상거래 회생 체권의 45%를 2010년부터 8년간 갚되, 소액 상거래 체권은 3년 이내에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일 광주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업체 늘려달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도

광주·전남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와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견의사항을 쏟아냈다.

2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위원회’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및 직능 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호월드상가협동조합 안창만 이사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

리상품권 등)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 범위를 슈퍼마켓, 일반 소매업체 등 취급업체를 다양하게 확대해 백화점 등의 상품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게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과 유사한 카드 수수료 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광주양동시장부 대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인구 15만명당 1개가 적정하나 광주시에는 인구 5만명 당 1개꼴로 주변의 재래시장은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재래 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SSM에 대해 신고기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숙박업중앙회 주승평 회장은 “광주시에 숙박업소가 너무 많고 경쟁이 심화돼 지난 5년간 300여 개 업체가 업종변경을 했다”며 신용 카드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숙박업에 대해 수수료 인하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허가제 설립을 건의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 건설사 수도권 투자 러시

모아·호반 등 동탄 신도시 택지 매입

광주·전남 주택사업 외면…미분양 악순환

지역 중견 주택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극심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보다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앞다퉈 택지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미분양 택지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삼능건설은 토목과 건축·전기·환경 플랜트 등이 주력 부문으로, 국내 시공능력평가 80위(시공능력평가액 2천800억원)의 중견 건설업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 계열사 7곳이 동탄 신도시 택지 분양을 신청했고 보성건설은 3개 계열사, 모아주택사업, 모아건설산업, 모아건설, 미래도건설, 모아종합건설과 흥한건설 계열사 5곳 등이다. 전국에서 광주·전남 건설사가 가장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의 경우 동탄 2 신도시 개발지구 내 처음으로 공급되는 택지인 만큼 책임 있는 시공 등을 고려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신청 조건은 까다로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 실적과 종합건설 면허 등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사만이 대상이다. 광주·전남 388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이 같은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대략 4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

분양 대상은 16개 편지별 가격도 611억(3만7천180㎡·648세대)에서 2천 815억(10만3천 626㎡·1천 416세대) 수준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 건설사가 앞다퉈 수도권 택지 매입에 나서는 이유는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값이 오르는 곳만 오르고, 아파트 분양도 되는 곳만 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있는 수도권 중심의 알짜 택지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은 회

생 기미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공급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지 12필지(57만4천931㎡) 가운데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부지는 제외하면 민간 건설사가 사들인 택지는 1곳에 불과하다.

토지주택공사는 처음으로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면서도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3년 무이자 분할 납부)했을 때도, 신청한 건설사가 없었다. 수완지구도 여지껏 팔리지 않은 공동주택용지가 남아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가 무리하게 택지를 매입, 투자에 나서겠느냐”면서 “내년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만한 정책이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 “대우건설 경영권 F1에 넘기겠다”

〈재무적 투자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에 대우건설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2일 금융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에 애를 먹고 있는 금호아시아나는 1일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인 18개 금융기관들을 만나 이달 15일로 예정된 풋백옵션 행사 시점을 1개월 연기하거나 이에 대우 건설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건설 매각작업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보고 재무적 투자자들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

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풋백옵션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돌면 매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시기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금 지급일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는 특히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대우건설 지분 18.6%를 재무적 투자자들에 넘기겠다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무적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39%와 금호산업의 18.6%를 더

57.6%까지 늘어나게 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가 재무적 투자자들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권도 함께 넘겨 풋백옵션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풋백옵션은 12월 15일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은 내년 6월 중순부터 이뤄진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금호아시아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투자자들 간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10억이상 국세 체납 호남 21명

미납액 675억원

(법인 6명, 개인 10명), 전북이 5명

(법인 3명, 개인 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6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체납액은 106억원, 체납자는 8명이 줄어 들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곳은 나주 남평에 주소를 둔 (주)하남건설로 이 회사는 건물 신축공사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13건에 16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남

건설은 전국 법인 가운데 체납액 8위를 기록했다.

개인중에서는 김태형씨가 46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호남지역 최고 개인 체납자로 기록됐다. 전국에서는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이 2조5천 417억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6명으로 체납주적전담팀을 편성하고 금융 주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둔 재산을 주적하는 한편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현금 징수와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591.63 (+21.91)
▲ 코스닥지수
475.97 (+6.93)
금리 (국고채 3년)
4.13% (+0.08)
원·달러 환율
1,154.00원 (-7.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좋은 경매를 실시한 후 수익성이 있는 우량건물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상금등록증

대한민국 2007.2.27. 2007.2.27.

국회법률정보센터 2007.2.27. 2007.2.27.

법률정보센터 2007.2.27. 2007.2.27.